

배 포 일	2023. 8. 8.	매 수	총 1매
담당부서	자활정책지원실 자활정책개발부	담당자	선임 이상아(02-3415-6934)
			주임 고은새(02-3415-6933)

‘2023년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자활정책포럼’ 참여 신청 접수 시작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8월 24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광주·전라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2023년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자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농어촌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농어촌지역 자활사업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정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사례발표는 전라지역 지역센터 운영사례가 소개된다.

※ 사례발표 : 김진왕 전북완주지역자활센터장, 위수미 전남장흥지역자활센터장

2부에서는 목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주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농어촌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정진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위원장, 박기문 광주광역시자활센터장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찾아가는 지역자활정책포럼은 각 지역의 자활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논의한다.”

며 “제주, 대전, 부산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자활정책포럼의 참가 신청은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 홈페이지(<https://lms.welfareinfo.or.kr>)를 통해 8월 8일부터 8월 22일 17시까지 사전 접수한다.

[첨부] 2023년 찾아가는 광주·전라지역자활정책포럼 포스터